사회 단신

올해 반세기 맞는 제주 4·3항쟁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의 항쟁은 대다수의 민중항쟁이 그러했듯이 통일조국 수립을 위한 자주적 의사표현이었다.

해방후 통일조국에 대한 열망은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결국 제주도에서는 민중들의 선거불참으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이에 당황한 미군정과 이승만은 친일세력과 경찰, 군인, 서북청년단 등을 앞세워 탄압으로 맞섰다. 이렇게 제주도의 4·3항쟁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아직까지도 4·3항쟁의 전모가 밝혀진 상황은 아니다. 이에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4·3항쟁에 즈음하여 인류, 인권의 문제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

을 하나씩 벗겨내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그동안 외면되다시피 했던 제주 4·3항쟁에 대해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의 자리를 연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3월 28일 성균관대에서, 제주 4·3 희생자 진혼굿은 지난 4일 연강홀에서, 제주 4·3항쟁 제50주년 기념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는 지난 4일 탑골공원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삽화 : 강요배의 4·3역사화 中〉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일부터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어 오는 7일 오후 2시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위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전형적인 행태인 불법적인 불심검문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의 관행을 뿌리뽑자는 의도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불심검문에 대한 교육과 불심검문관련 피해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불심검문 경고카드 제작 및 배포도 계획중이다.

□ 통일 기획(下) - 탈북자를 통해 본 통일한국의 과제(完)

남북 통일 빗장, 당신부터 열어라

막연한 이질감 · 적대적 갈등 심각… 탈북자에 대한 이해폭 넓혀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 사회주의 사회에서 피동적인 삶을 살아오던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진단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上)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자
(下) 탈북자를 통해 본 통일 한국의 과제(完)

이 금 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사회불안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탈북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은 분단 이후 남북한간의 정치적 대결구조 · 경제적 격차 · 문화적 이질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를 통해 우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엄청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일한국의 과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갈등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남북한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며 대내외적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한 주민들은 전반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쌍방의 정치체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교육받아 왔으며, 이러한 결과 상대를 동족이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막연한 증오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남한의 경제도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격차는 현격한 수준이며, 이는 남북한 주민간 사회갈등의 주요 기제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해 남한주민들은 북한주민들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며, 이들을 열등한 이등국민으로 멸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욕구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북한지역 주민들은 교육수준 및 산업수준의 차로 인해 개인적인 경쟁면에서 일반적으로 남한주민들에게 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위상강화 · 남북한의 보완적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부흥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통일이 민족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정치 · 사회적 안정이 일시적으로 저해되거나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기대수준만큼 불만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도 통일 이전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한지역 주민들과의 격차로 인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공히 동질적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단기간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전반적인 사회문화를 이질화시켜 왔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은 문화충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통일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방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접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 및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동시에 서로의 편견을 확인하고 분단상태의 막연한 이질감이 구체적인 갈등과 적대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에 익숙한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집단주의적이며 획일화되고 이념성이 짙은 북한 문화를 접할때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반면에 폐쇄적인 사회에서 외부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자극적이고 상업주의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한지역 주민들이 북한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세를 키워가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과 분단의 현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또한 통일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복원력을 키워가야 한다.

▲ 북한 식량난 심각. 탈북자 생활수준은 높아졌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각하다.

□ 정부의 탈북자 정책

'정착지원센터' 세워 적응 유도

"탈북자 1명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1백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9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총6백88명(98년 2월 기준)이며 이중 29%인 1백99명은 무직으로 드러났다. 또한 탈북자의 소득은 월평균 1백만원 이상이 50%에 이르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해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된 사람도 3명이나 되었으며 전체의 62%인 4백27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탈북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직업훈련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은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 시설이 불충분하다"며 "적성을 고려하지 않아 탈북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서구에 위치한 ㅅ직업훈련학교의 예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단지 3명뿐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인도지원국 국원은 "그동안 수동적인 북한사회에서 살던 습관이 몸에 익어 자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상의 문제에 앞서 개인적인 적응의지가 있을 때만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동시에 월남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월남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여 탈북자의 국내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백50여평 규모의 '정착지원센터'를 내년 중 완공한다. 수도권지역에서 건설중인 '정착지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약 1백여명의 탈북자를 수용하게 되며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및 법률 생활상담을 이곳에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탈북자의 재사회화과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이 기대된다.

〈최현일 기자〉

	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벌목공 · 노동자 농장원	121	0	1	1	1	36	21	28	23	6
군인	24	3	0	0	3	3	6	6	2	1
해외상사원 · 외교관 · 외화벌이	22	3	1	1	1	1	3	3	8	1
당 · 정무원 · 교사	34	0	2	1	1	5	4	5	16	0
학생 · 무직 · 기타	79	4	5	5	2	7	6	13	33	4

▲ 연도별 탈북자의 직업 분포〈자료제공 : 통일부〉

한총련 'IMF 재협상 경제 청문회' 촉구

IMF재협상 · 경제청문회 성사 및 김영삼 처벌을 촉구하는 한총련 궐기대회가 지난 2일 서울시내에서 치뤄졌다.

약 2천명의 학생들이 모인 이번 집회는 수유리, 청량리를 거쳐 한양대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홍보지를 배포했다. 〈사회부〉

□ 도원동 철거촌 폭력행위 사건 개요

철거용역 주민폭행, 생명위독

"철거민의 기본적인 생활권보호를 위해 순환식개발에 의한 가수용단지건설과 세입자 사정에 맞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합니다."

철거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철거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사무차장 박혜영씨의 말이다.

지난 94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도원동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작년 4월부터 철거용역들에 의해 수차례의 폭행을 당해왔다. 철거민들은 더이상 지상전은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월 7일 골리앗(철탑망루)을 건설하고 약 19세대 50여명의 인원이 현재까지 골리앗에서 거주하고 있다.

19세대의 골리앗 생활은 그야말로 감옥이었다. 철거용역들이 항상 골리앗 주변에 상주해 있어서 바깥 출입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지난 30일 골리앗 내 식량 조달을 위해 15명의 주민이 진입을 시도하다 두명의 주민 이범휘(61세), 백석호(28세)씨가 철거용역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 이범휘씨의 경우 두개골 파열, 척추 팔다리 골절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여서 네차례에 걸친 수술후에도 소생 가능성을 정확히 타진할 수 없다. 또 백석호씨도 전신화상으로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와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에 분개한 백기완, 장기표선생 등 각계 저명인사 6인은 지난 30일 항의방문단을 조직해 용산 경찰서를 방문, 철거민들과 (주)삼성 측의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강제철거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지난 31일 용산경찰서가 약속을 파기하고 골리앗 주변으로 용역들과 공권력, 중장비가 동원되었다.

(주)삼성 측이 철거민들에게 세워준 대책은 4인가족을 기준해 4백-5백만원의 집값과 약간의 이사비용,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대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지급뿐이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철연 박사무차장은 간절히 말했다. 〈김수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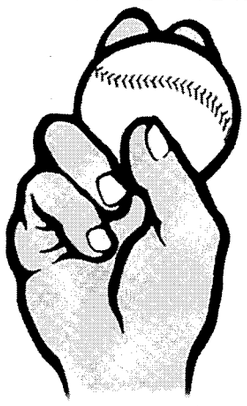
가치있는 내일 함께하는 삼양

http://www.samyang.co.kr

"단조로운 구질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직구를 잘 던지고 변화구를 잘 던져도, 직구 하나 변화구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 주위를 편하게 하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직선적이지만
결단력이 빠르고 일처리가 신속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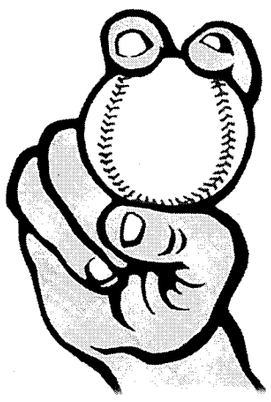


직구
가장 기본적인 구질로 무조건 빠르기보다는
스트라이크존의 네 구석을 찌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 템포 느리지만
남들 못보는 것을 보는 사람

체인지 업
직구와 던지는 동작은 같으나 속도가 12~16Km정도 느려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에 좋다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사람



싱커
직구처럼 보이다가도 타자 앞에서 갑자기 가라 앉아
방심타를 유도하므로 구원투구에 좋은 구질이다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나
남과 다른 길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

슬라이더
홈 플레이트 전방 약 60cm에서 바깥 아래쪽으로 꺾여
타이밍을 뺏는 현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구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끔 주위를 놀라게 하는 사람

너클볼
시속 75~80Km 정도에 회전이 전혀 없어
타자나 포수는 물론 던지는 투수까지도
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신비의 구질이다.

삼양 • 삼양사(化纖, 설탕, 사료, 化成, 환경, 의약) • 삼양중기 • 삼양제넥스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성 • 신한제분 • 삼양종합금융 • 삼양메디케어 • 삼양텍스 • 삼양데이타시스템 • 삼양텔레콤 • SY텍스타일 • SY비나 • 삼양그룹연구소 • 양영회 • 수당장학회